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지각 :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Perceptions of Parenting, Peer Relationship and Depression of Adolescents from
Divorced and Non-divorced Family*

유안진(An Jin Yoo)¹⁾

이점숙(Jum Sug Lee)²⁾

서주현(Joo Hyun Suh)³⁾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depression, parenting, and peer relationship perceived by adolescents from divorced and non-divorced families. Also, aim that identifies variables which have influences on adolescents' depression. The subjects were 35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live in Seoul and Incheon. All respondents answer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perceived more depression than those from non-divorced families. Second,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less warm than those from non-divorced families. Third,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perceived themselves more isolated and less understood in their peer relationships than those from non-divorced families did. Finally,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who feel less isolated and perceive parenting attitude more warm and less maturity-demanding perceived less depression.

Key Words : 우울(depression), 양육 태도(parenting attitude), 또래 관계(peer relationships), 이혼 가정 청소년(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 이 논문은 2003년도 두뇌한국21 사업 신규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¹⁾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³⁾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Corresponding Author : Jum Sug Lee, Department 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E-mail : leejs0427@hanmail.net

I. 서 론

최근의 사회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이혼 및 별거의 급속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2003) 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 1.1건이던 조이혼율이 2002년에는 3.0건으로 증가하여 12년만에 3배 가까이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이혼이 급속히 증가되면서 이혼에 관한 일반적인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 이제까지의 이혼에 관한 연구는 대개 이혼의 실태파악을 위주로 하고 있거나 이혼의 원인과 결과를 성인 중심으로 연구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혼은 이혼당사자들에게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변화를 경험하는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 실제로 Wallerstein(1989)은 부모의 이혼이 아동 및 청소년 자녀의 생활전반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이들의 성장 발달에 위해 노력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들은 적절한 사회화와 정서적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낮은 자존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으로 불안, 우울, 외로움, 분노, 유기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기도 한다. 게다가 부모 이혼 후 발생하게 되는 한쪽 부모의 상실이나 주거지 이동 및 학교전학과 같은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생활에의 적응문제로 스트레스와 함께 정신과적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 자녀들은 신체적 심리적 변화로 인한 발달상의 문제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문제의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이들이 경험하는 발달과정상의 큰 변화와 관련이 있다. 청소년들은 자기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이나 자극에 의해 감정변화가 쉽게 일어나며 각종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과격하게 표현하거나 위축되어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의 큰 고민거리인 역할갈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 독립과 의존의 갈림길에서 느끼는 방향, 과도한 역할부담 및 성적에 대한 부담감, 부적응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좌절감 등으로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변인과 환경적인 변인이 결합된 이혼 가정의 청소년들의 우울 문제에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알아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의 우울문제를 다루고 있는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이혼가정의 청소년이 비이혼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우울하며 이 시기의 우울은 성인기의 우울을 나타낼 가능성을 높게 한다는 연구결과(Benedek & Benedek, 1979)를 필두로 하여 Peterson과 Zill(1986)은 부모의 이혼과 같은 가족스트레스에 직면한 여아에게서 우울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McLanahan & Sanefur, 1994)에서도 이혼가정의 청소년들은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거나 괴로운 상태로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우울증상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며 이 변화가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자녀의 사회 정서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이혼과 자녀의 적응에 관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Wallerstein(1989)은 이혼은 이혼당사자에게는 결혼관계의 갈등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고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 사이에 지속적인 적대감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줄여준다고 하여 부부갈등이 많은 양부모 가정보다 이혼으로 인하여 갈등이 해소된 이혼가정의 자녀가 적응에 더 유리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Amato(1993)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하더라도 청소년의 적응은 개인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는가의 여부만으로 누가 이혼 가정의 자녀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하며 이혼 자체보다는 아동의 개인차를 더 강조하였다.

이혼가정의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되는 변인으로 가장 먼저 부모변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혼한 부모의 심리적 문제도 이혼 가정의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주위에 자녀 양육을 지원해 줄 사람이 없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감당해야 하며,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동시에 자녀의 정서적 적응도 지원해 주어야 하는 역할과다 현상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 일관성을 잃거나 자녀의 심리적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주지 못하여(Amato, 2000; McLanahan & Sanefur, 1994) 청소년들의 적응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자녀의 적응문제를 논의했을 뿐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실제로 어떤 행동을 보이든가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요소가 자녀의 적응과 더 많은 관련이 있으므로 청소년의 지각을 조사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의 제2의 사회화 기제는 또래이며 이

시기의 또래관계는 다른 시기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다.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2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게된다. 첫째는 아동기이후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증가되는 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어든다는 것에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청소년기는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주변인의 위치에서 갈등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 자신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또래에게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고(Hartup, 1993) 또래로부터 지지를 얻게 된다. 또래로부터 인정받고 수용되는 청소년은 자신감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갖지만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한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에서 회피경향을 띠게된다(이춘재 · 곽금주, 2000; Austin & Joseoh, 1996).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의 중요한 사회화인자인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Jaffe(1997)는 아동 및 청소년은 부모의 이혼으로 자신의 처지가 또래와 다르다고 느끼게 되면서 문제행동을 보이고, 다른 또래보다 슬픔, 스트레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그 결과 학교에서의 성취도가 떨어지며, 관계의 지속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또래관계에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은 또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부모의 이혼으로 청소년은 위축감과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것은 대민에민점수를 높게 하여 또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지나치게 또래에게 집착하며, 또래관계가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쉽게 상처받고, 또래집단에 적

응하지 못해 이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기도 한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의 적응은 이혼 관련변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후 경과기간, 양육부모와 청소년의 성일치 여부, 이혼 후 가계소득의 변화 여부 등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혼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다른 우리의 경우 서구사회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의 사회 정서적 발달 및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지만 갈등상태의 비이혼 가정환경 보다는 이혼으로 갈등이 해소된 가정환경이 청소년에게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청소년의 적응은 이혼 자체보다 개인적 특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등 연구결과간에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연구대상의 차이나 연령의 차이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혼 가정의 청소년의 적응과 비이혼 가정 청소년의 적응에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를 넘어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여 이들의 적응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우울지각과 양육태도 지각 및 또래관계 지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의 우울지각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어

떠한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선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우울지각은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 지각은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의 또래관계 지각은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청소년의 우울지각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지각 및 부모 양육태도 지각과 또래관계 지각은 이혼관련 변수(이혼 경과기간, 가계소득의 하락여부, 양육부모와의 성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관련 요인과 부모의 양육태도 관련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1차 본조사에서 경인 소재 중학교 3개교 및 고등학교 2개교의 2학년 학생 총 1839명, 2차 본조사에서 역시 경인 지역 소재 중학교 3개교 및 고등학교 3개교의 2학년 학생 총 2390명이 표집되었다. 1,2차 본조사를 통해 표집된 연구

대상은 총 4229명이었으며 이 중 이혼이나 별거 중인 가정의 청소년은 총 187명이었다.

이 연구는 이혼이나 별거 중인 가정의 청소년 187명과 사별, 재혼 등을 배제한 나머지 샘플 중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혼집단과 소득분포가 비슷하도록 무선표집한 비이혼가정 청소년 169명을 포함한 총 356명을 대상으로 한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84명, 여학생이 172명이었고 연령은 14세가 206명, 150명이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계소득에 따라 150만원 미만은 하, 1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는 중, 300만원 이상은 상으로 구분한 결과, 상이 68명, 중이 185명, 하가 103명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명)

구	분	인	원	전	체
부모의 이혼 여부	이혼 가정	187			
	비이혼 가정	169		356	
성 별	남	184			356
	여	172			
연 령	14세	206			356
	17세	150			
	상	68			
사회경제적 지위	중	185		356	
	하	103			

2. 측정도구

1) 우울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K-CBCL(Achenbach & Edelbrock, 1983의 한국어판)의 우울 척도 15문항 중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청소년에 적합한 문항들을 선정, 이를 수정하여 총 5문항을 사용하였다. 5문항의 신뢰도는 .73으로 신뢰할 만 하였다.

2) 또래관계

청소년의 또래관계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 김옥(2000)이 사용한 또래애착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호신뢰, 의사소통, 소외감의 3개 하위 영역을 포함하며, 상호신뢰 6문항, 의사소통 4문항, 소외감 5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상호신뢰가 .87, 의사소통이 .78, 소외감이 .67로 신뢰할 만 하였다.

3)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박성연과 이숙(1990), 박영애(1990), Lempers, Clark-Lempers, Simons(1989)의 PQ(Parenting Questionnaire)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지각된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5문항과 지각된 부모의 성숙요구적인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10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68, 성숙요구적인 양육태도가 .68로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 작성한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3년 10월 2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남녀공학 중학교, 고등학교 1개교 씩 총 2개교의 2학년 학생 200명이었고 이 중 분석 가능한 연구대상은 130명이었다. 전체 예비조사대상 중 이혼가정 청소년은 13명이었으며 이 대상은 본조사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예비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질문

지를 수정·보완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차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다수의 연구대상을 표집하는 과정에서 겨울방학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겨울방학 전후에 이루어졌다. 1차 본조사는 2003년 12월 6일부터 2003년 12월 2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2차 본조사는 겨울방학 직후인 2004년 2월 9일부터 2004년 2월 14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는 경인소재의 중학교 6개교와 고등학교 5개교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사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해당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응답 방식 등을 간단히 설명한 후 교사의 감독과 지시 하에 조사를 실시하고 질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 통계와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독립표본 t-검증, 삼원변량분석, 그리고 변수간 상관관계와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II.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지각 차이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라 청소년이 스스로 지각하는 우울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표2>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지각 차이

변수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우울	이혼가정	187	7.88(2.34)	2.75**
	비이혼가정	169	7.24(2.04)	

**p<.01

기 위해 연구대상을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별거 중인 가정의 청소년(이하 이혼가정 청소년)과 이혼, 별거, 사별, 재혼 등의 사건을 겪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이하 비이혼가정 청소년)으로 나누어 두 집단간의 차이를 t-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혼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우울(평균 7.88점)이 비이혼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우울(평균 7.24점)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p<.01).

2.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 차이

다음으로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신에게 얼마나 성숙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양육하는가에 관해 살펴보면,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부분에서는 이혼가정과 비이혼가정의 청소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이혼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평균 18.45점)가 비이혼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평균 19.52점)보다 낮았다(p<.01). 이것은 이혼가정 청소년들이

<표 3>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 차이

변 수	집 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부모의 양육태도	성숙요구적 양육태도	이혼가정	187 34.76(5.95)	-1.97
		비이혼가정	169 35.82(3.97)	
	온정적 양육태도	이혼가정	187 18.45(4.13)	-2.75**
		비이혼가정	169 19.52(3.20)	

** $p < .01$

비이혼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덜 온정적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3.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관계 지각 차이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지각된 또래관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이혼가정 청소년(평균 10.66점)이 비이혼가정 청소년(평균 10.01점) 보다 유의하게 높아서($p < .01$) 이혼가정 청소년들이 또래관계에서 더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또래간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이혼가정 청소년(평균 11.14점)이 비이혼가정 청소년(평균 11.59점)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여서 이혼가정 청소년들이 비이혼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또래관계에서의 상호신뢰 측면에서는 이혼가정 청소년(평균 19.16점)과 비이혼가정 청소년(평균 19.67점)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관계 지각 차이

변 수	집 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소 외 감	이혼가정	187	10.66(2.45)	2.40**
	비이혼가정	169	10.01(2.63)	
또래관계 의사소통	이혼가정	187	11.14(2.08)	-2.09**
	비이혼가정	169	11.59(1.99)	
상호신뢰	이혼가정	187	18.16(3.37)	-1.51
	비이혼가정	169	18.67(3.10)	

** $p < .01$

4.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본 청소년의 우울지각에 대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이 지각한 우울 정도에 미치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의 두 하위영역과 또래관계의 세 하위영역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이혼가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중 변인 입력 방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이혼가정과 비이혼가정의 청소년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지각에 대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상대적 영향력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지각에 미치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위의 <표 5>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청소년에 의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요인 중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지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또래관계에서 지각

〈표 5〉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 관련변수 중다회귀분석

		예 언 변 인	B	β	R ²	F
우 울	1단계	또래 소외감	.35***	.36	.13	28.24***
	2단계	또래 소외감	.34***	.35	.13	19.88***
		온정적 양육태도	-.12***	-.21	.17	
	3단계	또래 소외감	.32***	.34	.13	15.62***
		온정적 양육태도	-.17***	-.29	.17	
		성숙요구적 양육태도	.07**	.18	.19	

** $p < .01$ *** $p < .001$

하는 소외감인 것을 알 수 있다. 또래관계에서의 소외감 변인은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지각의 13%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예언변인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온정적 양육태도이다. 지각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또래 소외감에 더해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지각의 설명력을 4%를 증가시켜, 지각된 또래관계에서의 소외감과 온정적 양육태도는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지각의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델에 지각된 부모의 성숙요구적 양육태도가 예언변인으로 추가되었을 때,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지각에 대한 설명력은 2%가 증가하여 또래관계에서의 지각된 소외감과 지각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성숙요구적 양육태도의 세 변인이 총 17%의 설명력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세 변인의 상관

관계는 그 절대값이 모두 .30 이하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이혼가정 청소년이 또래관계에서 지각하는 소외감이 클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숙을 요구하는 정도가 클수록,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지 않을수록 이혼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지각에 대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상대적 영향력

비이혼가정의 청소년의 우울지각에 미치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비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지각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청소년

〈표 6〉 비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 관련변수 중다회귀분석

		예 언 변 인	B	β	R ²	F
우 울	1단계	또래 소외감	.27***	.34	.11	22.34***
	2단계	또래 소외감	.23***	.30	.11	14.75***
		온정적 양육태도	-.12**	-.19	.14	

** $p < .01$ *** $p < .001$

에 의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요인 중 또래 소외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가정 청소년에서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설명력은 이혼가정 청소년(13%)의 경우보다 조금 낮아서 11%의 설명력을 가진다.

비이혼가정의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에 또래 소외감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온정적 양육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에서의 지각된 소외감과 지각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15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으며, <표 6>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청소년이 지각한 온정적 양육태도는 비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지각에 대해 또래 소외감이 갖는 11%의 설명력에 3%의 설명력을 더한다.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지각과 비교했을 때, 온정적 양육태도만이 갖는 설명력은 비이혼가정 청소년에게 더 작고, 또래소외감과 함께 갖는 설명력 또한 14%로 동일변인들이 갖는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지각에 대한 설명력(17%)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지각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던 지각된 부모의 성숙요구적 양육태도 변인은 비이혼가정 청소년들의 우울지각에는 유의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t-검증 결과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성숙요구적 양육태도는 이혼가정에서나 비이혼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에 대한 부모의 성숙요구적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 비이혼가정 청소년들과는 달리, 이혼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우울지각을 높이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지각된 또래관계에서의 소외감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성숙요구적 양육태도가 비이혼가정 청소년보다 이혼

가정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다시 말해, 비이혼가정 청소년에 비해서 더 높은 우울을 지각하는 이혼가정 청소년들에게 또래관계에서의 소외감을 줄이고, 더욱 온정적인 양육태도와 성숙을 덜 요구하는 양육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의 우울지각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5. 이혼관련변수(이혼 경과기간, 가계소득의 하락여부, 양육부모와의 성일치 여부)에 따라 본 청소년의 우울지각 및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과 또래관계 지각의 차이

이혼관련변수인 이혼 후 경과기간과 이혼 후 가계소득의 하락여부, 양육부모와 청소년의 성일치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지각 및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과 또래관계 지각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혼 후 경과기간은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으로 나누었고, 이혼 후 가계 소득의 하락여부는 가계 소득의 유지와 하락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이혼 후 경과기간, 이혼 후 가계 소득의 하락여부, 양육부모와 청소년의 성일치 여부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우울지각 및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과 또래관계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의 우울과 또래관계 및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 두 집단의 우울에 대한 또래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연구문제 순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을 더 많이 느낀다. 이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의 불안과 위축 및 우울을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Jaffe, 1997)와 일치하는 것이며, 우울증 환자는 다른 질환의 환자들이나 정상인보다 부모와의 사별, 이별의 경험이 더 많다는 연구(최선남·최외선, 1999)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한쪽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접촉의 빈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상실로 인해 우울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양육부모도 이전의 부모 두 사람이 행하던 부양자 역할과 양육자 역할을 한 사람이 모두 행해야 하므로 역할과다로 인해 자녀와 접촉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어지고 이로 인해 우울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이혼가족 청소년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여,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을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둘째,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이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신의 부모가 더 온정적이지 않다고 지각한다. 이것은 양쪽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한쪽 부모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자신의 부모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연구결과(최선남·최외선, 1999; Peterson & Zill, 1986)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으로 인하여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하여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시간과 자원의 제한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자녀에게 더 부정적일 수 있으며, 더욱이 이들은 역할과다를 경험하고 이것이 자녀에게 표출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셋째,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또래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했다. 즉, 전자가 후자보다 또래로부터 더 많이 소외되었다고 지각하였고, 또래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각하였다. 이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의 또래에착이 더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김옥·이완정, 2001)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졌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위축감과 열등감 때문에 자신을 또래에게 개방하지 않고, 또래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이들이 실제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또래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장기적으로 친구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자신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부모가 온정적이고, 자녀에게 성숙요구를 적게 할수록 우울을 적게 느끼고, 또래에게 소외되지 않았을 때 우울을 적게 느낀다. 반면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부모가 온정적이고 또래로부터 소외되지 않았을 때 우울을 적게 느낀다. 즉,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와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이혼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우울

지각을 예측하지만 부모의 성숙요구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우울만을 설명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서구연구들은 민주적 양육방식(authoritative parenting)과 같이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완고한 통제를 통해 성숙을 요구하는 것이 자녀의 발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 부모의 성숙요구가 적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우울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으로 한쪽 부모와 분리를 경험하고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등 상실감과 위축감을 느낀 이혼가족의 청소년에게 부모의 성숙요구는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혼가족의 청소년이 우울지각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성숙요구를 줄이고 보다 많은 관심과 온정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에 온정적인 양육과 원만한 또래관계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부모교육을 통해 적절한 양육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도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우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혼 후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공적인 부조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 및 이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이 더 우울하다고 지각하지만 이들의 우울은 이들이

경험하는 부모의 양육과 또래관계에 의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또래들이 보완해 줄 수 있고 부모의 온정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양육이 보완해 줄 수 있으며 부모의 이혼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이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주장(Hetherington, 1989; Jaffe, 1997; Wallerstein, 1989)을 일부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이혼 집단으로 분류된 청소년 중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이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을 염려하여 질문지에 부모의 이혼여부에 솔직히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추론의 근거는 일반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 선행연구(김옥·이완정, 2001)에서 조사대상의 약 10% 이상이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응답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4000명이 넘는 대상 중 자신의 부모가 별거를 하고 있거나 이혼을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8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의 학급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비이혼으로 응답한 청소년 중 부모가 이혼을 한 것이 확실하거나 이혼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제외하기는 하였지만 교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대상이 비이혼 집단으로 분류되어 분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선행연구(오은순, 1997; Jaffe, 1997; Wallerstein, 1989)에 따르면 이혼 이후의 적응은 그 가정이 속해있는 사회경제적 지위 및 소득의 변화와 많은 관련이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 이혼이후 소득이 많이 감소하여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대상이 많았다. 그러므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의 우울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혼으로 인한

소득저하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이 혼재된 결과일 수도 있다. 셋째, 연구결과에서 유익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들의 평균차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후속연구에서 더 많은 사례에 의한 분석을 통해 확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된 다른 변인을 상세화시킨 연구가 요청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부모의 이혼과 자녀의 적응이라는 주제를 청소년의 2가지 사회화 기제인 부모와 또래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과 이혼관련 연구 중에서 보기 드물게 많은 수의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참 고 문 헌

가족학연구회 편(1995).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 하우.
 김남숙(199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서울시내 중학생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김 옥 · 이완정(2001). 부모의 이혼과 아동의 또래 애착. *가정관리학회지*, 19, 31-40.
 박성연 · 이 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 141-156.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춘재 · 광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1), 95-113.
 최선남 · 최외선(1999). 아동의 우울 정도에 따른 가족환경 지각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91-

100.
 통계청(2003). *인구통계연보* 서울 : 통계청.
 Amato, P. R.(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3- 38.
 _____.(2000).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69-1287.
 Austin, S., & Joseph, S.(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Avenevoli, S., Sessa, F. M., & Steinberg, L.(1999). Family structure, parenting practices, and adolescent adjustment : An ecological examination. In E. M. Hetherington(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65-92).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Bank, L., Forgatch, M. S., Patterson, G. R., & Fetrow, R. A.(1993). Parenting practices of single mothers : Mediator of negative contextual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71-384.
 Benedek, R. S., & Benedek, E. P.(1979). Children of divorce : Can we meet their needs? *Journal of Social Issues*, 35(4), 155-169.
 Dreman, S.(2000). The influences of divorce on children.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2, 41-71.
 Hetherington, E. M.(1979). Divorce :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34(10), 851-858.
 _____, Hagan, M. S., & Anderson, E. R.(1989). Marital transition :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3), 230-238.
 Jaffe, M. L.(1997). *Understanding parenting*. Boston, MA : Allyn & Bacon.
 Kurdek, L. A.(1981). An intergrative on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American Psychologist*, 36(8), 856-866.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between marital and child problems. In J. P. Vincent(Ed.) *Advances in*

-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 (Vol. 2, pp. 131-182). Greenwich, CT : JAI.
- Peterson, J. 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Stress, support,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398.
- Wallerstein, J. S., & Blakeslee, S.(1989). *Second chances : Men, women and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Y : Tichnor & Fields.

2004년 8월 31일 투고 : 2004년 10월 27일 채택